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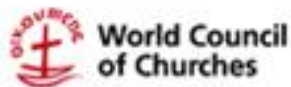
상처 입은 세상에 종교간 연대로 봉사하기

코로나 사태와 그 이후의 성찰과 행동을 위한 그리스도교의 제안



Serving a Wounded World in Interreligious Solidarity

*A Christian Call to Reflection and Action
During COVID-19 and Beyond*



교향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세계교회협의회

최벨라인 수녀가 구상한 표지 그림은 심장을 중심에 둔 연대하는 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전염병과 더불어 인간과 지구를 괴롭히는 문제들로 야기된

고통의 상처를 품고 나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이 시기에 생명을 수호하는 인간의 노력, 희생, 연대, 책임을 상징합니다.

전문

코로나 전염병이 많은 고통을 야기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세계교회협의회와 교황청 종교간대화 평의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과 봉사에서 우리와는 다른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이들이나 특정한 신앙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이루는 연대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문서는 코로나 전염병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이유로도 상처를 입은 세상을 위하여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의 봉사하려는 의지를 일깨우고 그들을 독려할 수 있는 종교간 연대를 위한 그리스도교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지만 각자의 고유한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와 비슷한 생각으로 이 위기에 이미 대처해온 다른 종교의 신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염병에 맞서 싸워야 하는 세계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교회일치적이며 종교간의 각성과 협력을 더욱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참조: 루카 10,25-37)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의 성찰에 도움이 되고 ‘봉사’와 ‘연대’라는 단어에 함축된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상처를 입고 길거리에 내버려진 한 남자를 보고도 그의 종교 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그냥 지나가며 그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도운 한 사마리아인은 그 버려진 남자가 속한 공동체와 종교적 정체성, 바른 예배 방식, 정치 문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하여 수 세기에 걸쳐 갈등을 벌여온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봉사와 그들과 맺는 연대에서 경계를 초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성찰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품을 수도 있는 부정적인 억측을 극복해야 하고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다른 이’가 봉사와 연대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 전염병, 종교적 불관용, 차별, 인종차별, 경제적 생태적 불의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인간이 저지른] 죄악으로 상처 입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방법에 대하여 숙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상처 입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 입히고 소홀히 대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처럼 동정심을 발휘하는 이들을 보고 경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원화된 세상에서 고통을 줄이고 치유와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봉사의 대상이 되는 이들, 우리와 함께 봉사하는 이들과 관련된 종교적 편견과 문화적 선입관의 극복을 촉구합니다. 이와 동시에 상처 입은 이에게 도움을 주는 예상치 못한 ‘타인’, 곧 착한 사마리아인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에 중요한 희망을 줍니다.

현재의 위기

우리가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퍼져나가며 **코로나 전염병은 지구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전염병은 모든 이의 일상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약점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감염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더하여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슬픔을 이겨내기 위하여, 특히 사랑하는 이들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을 위한 마지막 예식과 장례식을 거행하지 못하는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써왔습니다. 봉쇄 조치(lockdown)는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으로 세계의 기근이 배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가정 폭력도 증가되었습니다. 물리적,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는 많은 이들에게 고립을 의미하였습니다. 좌절, 근심, 불안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유한 이든 가난한 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도시 사람이든 시골 사람이든, 농부든 사업가든, 노동자든 학생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인류 전체가 심각한 상처를 입은 가운데에도 이 전염병은 부유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 특권층과 비특권층 사이에 놓은 엄청난 간극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병든 이들과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흔히 의료 혜택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전염병은 인종적 편견을 악화시키고 불평등, 배타주의, 차별, 지배의 구조로 유지되는 지배적인 정치 집단에 오랫동안 위협으로 간주되어 온 이들에 대한 폭력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변으로 몰린 이들, 특히, 이주민, 난민, 감옥에 갇힌 이들은 이 전염병으로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관련한 인간의 비참은 이 지구의 고통이라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받는 인간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지구와 전체 생명 공동체가 오랫동안 질려온 비명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코로나 전염병 이후의 세상에 야기될 경제적 결과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보건의 관련된 위기가 기후변화와 종의 다양성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미래의 위기에 대한 경고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세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하여 우리 태도와 행동의 생태적 전환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취약하다는 사실에 대한 높아진 경각심으로 모든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연대가 요청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봉사하는 의료계 종사자들과 다른 모든 이들의 영웅적인 공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과 이루는 연대의 표징이 넘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 정신과 자선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모든 신앙인들과 선의의 사람들과 더불어 동정심을 발휘하는 문화의 형성에 협력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과 취약한 이들에게 개인이나 단체의 차원에서 손을 내밀어 물질적, 심리적, 영적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인류 가족이기에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의 공동의 집인 지구에 함께 거

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호의존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도록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종교간 관계라는 것이 연대를 표현하고 구축하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곳에서 오는 자원을 받아들이는 데에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신앙인과 선의의 사람들과 맺는 연대에 함께하는 방법에 대하여 성찰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 연대를 향한 여정에서 다양한 공동체들은 우리 각자의 전통에서 찾은 희망에서 힘을 얻으며 이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희망으로 지속되는 연대

모든 사람들은 희망과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주는 힘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도 살고자 하는 의지에 보탬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희망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화해하고 정의와 평화 안에서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이 희망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을 가리키며, 동시에 이 세상과 그 번영을 위한 봉사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 전통의 신자들과 더불어 일하며 협력하여 정의와 평화로 일치된 세상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실현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선의의 사람들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며 희망의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희망은 모든 종교의 핵심 요소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적 희망은 종종 신자들이 사랑과 동정심을 발휘하여 인간적 상황에서 오는 비극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도록 재촉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염병으로 초토화된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하여 보편적이며 공통된 윤리적, 영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는 인류가 마을, 지역, 국가, 국제의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도록 일깨우고 이끄는 일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망은 인류 가족의 일치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도덕 가치를 바탕으로 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에 봉사하고 그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종교적, 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자신, 가정, 도시, 국가,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커다란 상처를 입은 것에 대처하도록 세상에 다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종교간 연대를 위한 우리의 바탕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종교간 연대의 기초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 모든 인간은 한 분이신 아버지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참조: 창세 1,26-27).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똑같은 좋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사랑, 그리고 거저 얻은 동등한 존엄으로 연결된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신 창조주를 통하여 연결되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한 가족인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깨달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치유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모습과 도구가 되어 모든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안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길에 놓인 방해물을 제거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것처럼 이 연대는 보편적이며 경계를 넘어서며 모든 인간을 지향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통된 기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만든 가지적 분열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2. 당신의 상처로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희망(참조: 1베드 2,2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확고한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또는 ‘더불어 아파한다’는 [com+passio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에서 동정심을 최고의 치유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사랑의 통로가 되어 이러한 치유에 이르도록 ‘더불어 아파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도 그 ‘더불어 아파하기’에 의존하는 존재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동정심을 보면서 그가 세상의 상처를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자비와 동정심이라는 미덕이 다른 종교 전통에도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통 안에도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 대한 관대함과 관심의 사례가 넉넉히 존재합니다.

3. 우리는 또한 상처를 입고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참조: 마태 25,31-46).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고통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고통받는 이들이 똑같이 존엄하며 모두 치유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참조: 마태 18,14)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신다는 사실은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이나 근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의 상처를 온전히 보듬어 타인의 고통을 전혀 멀리하지 않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어 이 연대는 또한 모든 이에게 새로운 존재 방식을 마련하여 줍니다. 부활은 사랑이 그 어떤 깊은 상처보다 강하며 죽음이 궁극적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의 증거이며 보증입니다.

4. 우리가 다른 이들과 연대하면 성령의 활동으로 서로 연결됩니다. 성령께서는 “불고 싶은 대로 부십니다”(참조: 요한 3,8).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다른 이,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를 대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활동을 목격하고 경탄하며 겸손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향하고 봉사와 연대 안에서 우리 이웃을 향하도록 이끄는 영적 힘이 되시는 성령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신앙을 지닌 모든 이들과 우리를 연결시켜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우는 데 사용해야 하는 은사로 우리의 기운을 북돋워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고 교만, 시비, 시

기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해주십시오(참조: 갈라 5,22-23;26).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고통받는 모든 이를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손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원칙들

이 길을 함께 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세계교회협의회와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가 이 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서의 구상 과정과 내용이 다른 종교 전통의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방성과 책임을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상처 입은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신앙인들과 선의의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에게 봉사하는 활동에서 우리를 이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인식합니다. 이 원칙은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믿음과 모든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1. 겸손과 취약성: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참조: 미카 6,8; 마태 11,29) 그리스도의 수난과 세상의 고통에 기꺼이 함께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담대한 돌봄'에 자신을 열면서 함께하기(with-ness)의 증언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겸손과 취약성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희생적인 사랑의 모범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참조: 필리 2,5-11). 교만해질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충분히 성장하도록 자신을 열지 못하면 우리는 분열을 야기하고 지속시키는 자폐적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하느님과 싸운 야곱처럼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상처 입는 것을 무릅써야 합니다(참조: 창세 32,22-32). 우리는 권력에 맞서 진리를 말하고 불의를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일 때 취약해집니다. 우리는 또한 용서의 바탕이 되는 정의를 믿습니다. 정의가 없다면 갈등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희생을 본받아 정의를 위한 투쟁에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인들의 긴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2. 존중: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 개인들이 처한 독특하고 복잡한 상황을 존중하며 그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할 권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국적, 수입, 성별, 피부색 등과 같은 요소들에 환원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증언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모습으로(참조: 요한 1,14)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신을 드러내시어 인류 전체[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모든 인간이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음도 확인시켜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빈부와 남녀 사이에 벌어지는 것을 포함한 모든 차별을 줄이며 불평등을 치유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재촉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한 불평등으로 삶과 이야기를 종종 억압당하는 이들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여야 합니다(참조: 마태 7,12).

3. 공동체, 동정심, 공동선: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를 마련

해줍니다(참조: 마태 5,7).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간 삶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려안아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만 우리의 인간성을 온전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에 맞갖은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우리의 연대를 위한 동력은 예수님께서 “진영 밖의”(히브 13,12) 세상에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그려안으신 세상의 상처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바르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고, 동정심을 키우며, 공동선을 촉진하는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4. 대화와 상호 학습: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뭔가 배우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것에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참조: 사도 11,1-18). 가난한 이들과 상처 입은 이들은 종종 중요한 가르칠만한 중요한 교훈과 베풀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의 가난과 상처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바꿀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민과 난민들이 환대받으면 그들과 그들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함께 변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취약한 이들에게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될 기회가 있습니다(참조: 요한 9,2-3).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우리의 소명을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를 묻는데 도움이 됩니다.

5. 회개와 쇄신: 치유와 온전함으로 나가는 과정에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억압적인 체제와 공모하여 죄를 지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참조: 2사무 12장). 우리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리라고 확신하면서 스스로도 죄로 상처 입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에 어떻게 상처를 입혔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우리의 어머니인 지구와 우리의 형제자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 또한 공동체로서 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상처를 입힌 폭력의 역사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야기한 공범이었다는 고백은 우리가 좀 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줄 참된 쇄신의 출발점입니다. 그러한 자기비판적인 성찰은 또한 가난한 이들의 가난, 상처 입은 이들의 상처를 그들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유혹에 맞서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또한 하느님께서 각자의 가치나 공로를 근거로 어떤 사람은 잘 살도록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도록 하신 것으로 여기려는 생각에 맞서도록 해줍니다. 또한 우리가 침묵과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며 암묵적으로 지속시킨 불의한 체제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6. 감사와 관용: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며 관용을 베풀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와 무관하게 모든 완전한 은사의 원천인 하느님의 은사를 풍부하게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참조: 야고 1,17).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에 집착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초기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즐겁고 순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철저한 나눔의 경제였습니다(참조: 사도 2,45.46). 또한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

교 공동체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난하게 되신 하느님의 힘을 주시는 은총으로 심각한 고통과 극단적인 빈곤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후한 인심의 모범을 보여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참조: 2코린 8,1-9).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에 대한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안심하고 확신을 지니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상처 입은 세상에 봉사하기 위하여 당장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는 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7. 사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에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참조: 1요한, 4,19). 비록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는 모습이나 다른 이들이 꾸며내는 모습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면 그리스도교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참조: 요한 13,35).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활동에서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협력하면 여러모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과 사명에 힘을 보태고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이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그리스도 현존의 사랑에 넘치는 징표가 되게 합니다. 이는 활기차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함께하는 이들과 우리 사이의 사랑과 이해를 증진시켜 줍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그 나라를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꼴찌가 첫째가 됩니다(참조: 마태 20,16). 이는 우리 시대의 제국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안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웃에 봉사하고 그들과 더불어 봉사할 것을 권유합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1. 고통을 증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 가운데 상처 입은 이들이나 취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거나 배제하려는 모든 세력에 맞서고, 그러한 고통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나 구조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다양성을 하느님 은사로 찬미하는 포용주의 문화를 증진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배타주의의 모든 표징에 맞서기 위한 것입니다. 포용주의는 가정생활에서 시작하여 다른 사회 제도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를 목표로 하여 우리는 건전하고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평화와 연대의 표징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 매체를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3. 영성을 통하여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넓은 세상의 필요를 인식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해야 하는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되면 기도, 금식, 극기, 자선과 같은 전통적인 영적 수련이 얼마나 더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될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4.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제, (남녀) 수도회 회원, 평신도, 사목 활동가, 학생들이

공감능력을 키우고 상처받은 인류를 위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최적화된 지식과 도구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5. 젊은이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이상주의와 힘은 우리가 살고있는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는 노력에서 냉소주의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방책(防柵)이 될 수 있습니다.

6.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추구하는 대로] 이는 환대하며 포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의 신자들에게서 종교간 연대 안에서의 활동을 위한 그들의 동기와 원칙과 권유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변으로 몰린 이들이 속할 자리를 마련하여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존중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단체가 서로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그들이 사랑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종교간 연대를 위한 계획과 과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계획과 기존의 역량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러한 계획과 역량이 다른 공동체나 조직 또는 매체와의 협력 활동으로 어디에서 힘을 보탬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구성 계획은 우리가 창조된 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들끼리만’ 머물고자 하는 유혹을 이긴다면 우리의 활동은 인류의 온전함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세상에 함께 봉사하면 우리 모두 이웃이 될 것입니다.

결론

교회일치적 종교간 연대는 우리의 신앙적 노력이 사람들의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는 요소가 되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의 신자들과 선한 의지를 지닌 이들과 손을 맞잡고 노력하면 우리는 평화, 정의, 상호 유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적 확신의 핵심에 놓인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가치들을 재현하고 강화시켜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간 연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하느님께서 세상에 바라시는 대로 그들과 함께 평화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돕는 사람들, 우리와 더불어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들, 우리를 돕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키우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 모습을 닮고 그 모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일치적, 종교간 연대를 통하여 코로나 전염병으로 상처 입은 세상을 위한 봉사에 우리 자신을 열면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범에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참조: 마태 20,28). 착한 사마리아인의 사랑과 관용을 본받아 우리도 약하고 취약한 이들을 돕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며, 고통과 괴로움을 달래주고, 모든 인간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연대를 통하여 우리의 손을 벌려 함께 치유와 희망으로 넘치는 세상을 함께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